

## PB9) 낙동강하류의 철새와 도래 저해요인

우용태, 이종남\*, 강승구<sup>1</sup>

경성대학교 조류관, <sup>1</sup>경성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

### 1. 서 론

낙동강하류는 세계적이며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로서 1966년 문화재(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재 지정 후 하구둑 건설(1987년), 어로와 농업의 증대, 수변 조간대의 매립, 공단과 주거지 확산 등으로 인한 환경 악화로 철새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철새의 연간 도래수, 지역별 도래수, 종류수, 희귀종, 번식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보호와 관리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재료 및 방법

조사 시기는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년간 하였으며 조사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로 크게 5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조사 방법은 P.C.M법, Strip intersect법, Line census법으로 하였으며 망원경과 쌍안경으로 확인되는 종과 개체수를 기록하였다. 군집분석으로는 우점도, 상대밀도, 종다양도를 구하였다.

### 3. 결 과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에서 기록된 조류는 총 120종 71,179개체였다. 월별로 보면 종수로는 1월이 75종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이 37종으로 가장 적었다. 개체수에 있어서는 2월이 35,134개체로 가장 많았고 8월이 1,764개체로 가장 적었다.

구역별로는 하구둑 하부가 108종 37,909개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낙동강 본류 59종 19,799개체, 서낙동강 59종 11,537개체, 맥도강 44종 1,238개체, 평강천 33종 736개체 순이었다.

이동유형별로는 겨울새가 48종 55,937개체로 가장 많았고 나그네새 27종 3,728개체, 여름새 21종 3,304개체, 텃새 23종 8,207개체, 길잃은새 1종 1개체로 나타났다.

우점종으로 5,000개체 이상인 종은 청둥오리(15,036개체), 붉은부리갈매기(6,934개체), 큰기러기(5,256개체)였다.

희귀종은 큰고니를 비롯한 23종 6,980개체가 조사되었다.

본 조사지역에서 번식하는 조류는 흰물떼새, 쇠제비갈매기 등 총 29종이었다.

철새 서식을 저해하는 요인은 철새들의 먹이 감소(기수역의 변화와 어류의 회유차단, 수질악화, 불법어로 등), 불안요인(작업선, 쾌속선의 질주와 굉음, 자동폭발음장치 등), 휴식지 및 산란지 감소(번식지내 인간 출입, 쓰레기 집적, 유해 동물들의 침입 등)이다.